

패션에 내재된 한·일 미적관점 비교연구(2보)

- 일본의 미적 관점을 중심으로 -

채금석 · 김주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 전공 박사과정^{†*}

A Comparative Study on Japan and Korea Aesthetic Point of View in the Modern Fashion

- Japanese Aesthetic Points of View in Modern Fashion -

Keum-Seok Chae · Ju-Hee Kim^{†*}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Progra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7. 4. 17 접수; 2017. 8. 1 수정; 2017. 8. 4 채택)

Abstract

Sensitiv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relation to design in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atmosphere. In the West, the concept of aesthetics has long been established but in the East, only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China did the discussion begin. In Korea, where the first scholarly discussion on aesthetics began around 1929, more and more rigorou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are emerging now. Korean beauty consists of the beauty of no-artfulness and the beauty of natural artfulness. Japanese beauty consists of the beauty of half-articulation and the beauty of articulation. While both Korea and Japan base their sense of beauty on nature, Korea emphasizes nature as it is while Japan values artful decorative elements. Especially in modern Korean fashion, the characteristic Korean aesthetics of un-artfulness appears in various expressive techniques such as the movement with natural gathering,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like cotton, the harmonization of black and white, and a simplified silhouette. In Japanese fashion, one can see techniques such as: the beauty of half-articulation expressed through the ambiguity of shapes, colors, and genders or simplicity and paucity using straight lines, the beauty of articulation expressed with bright flower prints and ornaments, accessories of Obi and feathers and the transformed silhouette.

Key Words: Aesthetics(미학), No-artfulness(무작위적 작위), Natural artfulness(작위), Half-articulation(반꾸밈), Articulation(꾸밈), Fashion(패션)

[†]Corresponding author: Ju-Hee Kim
Tel. +82-2-710-9312, Fax. +82-2-710-9312
E-Mail: ga_ru@hanmail.net

I. 서론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 하기 위해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메가트렌드의 헤안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예상이 아니라 예측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디자인 분야 역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한 정립과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름다움과 감성의 가치를 끌어내어 차별화 시키는 것이 미래사회의 커다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한류를 시작으로 한국적인 감성은 세계 시장 진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은 중요하다. 극동에 위치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문화권임을 공통으로 하나, 다른 문화와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 일본으로 한국의 문화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패션은 빠른 해외 진출과 산업 발달로 세계무대에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이에 한국의 미가 일본과는 확연히 다름을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강조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학문간 융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패션 분야는 미학이라는 학문적 사유체계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미학(aesthetics)이 미와 예술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비교미학은 비교(comparison)을 통해 수행하는 학문적 활동이다(민주식, 1992). 특히 비교미학은 미와 예술의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유사한 대상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별하고자 할 때 비교라는 방법이 생겨나며, 이는 문화의 특수성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최광진, 2015). 다시 말해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존재하는 특징적인 미적 개념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미적인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적 원리는 비교분석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점차적으로 발전되었을 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예술과 패션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가 이루어진다.

한국과 일본의 패션을 비교한 선행연구가(김인숙, 윤순봉, 1995; 김효진, 2010; 윤보연, 2001; 이선희, 2008) 있으나, 미학이라는 학문적 범주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

학이라는 학문적 범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미를 분석하고 이를 현대 패션에 적용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앞서 1보를 통해 한국미학의 범주에서 한국미를 분석하고 무작위의 미와 무작위적 작위의 미를 현대패션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보에서는 첫째, 국내외에서 논한 일본미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미를 분석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적 관점을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이론적 범위는 한국과 일본의 미학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19C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미학 관련논문 및 서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미의식을 비교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적 요소는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개념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0년으로 한정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디자이너 작품의 객관성을 위해 의상전문교사 및 강사 20인이 이를 판단하였다.

II. 일본의 미학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

1. 일본의 미학

일본 문화는 수용과 변화의 연속이다. 일본인은 개방성과 유연성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하였으며, 거부보다는 자신의 틀에 맞추고 선택하여 창조적인 일본의 미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일본의 문화·예술 및 그 바탕에 내재된 미의식은 19C 중반 미국에 의해 문화가 개방되면서 서구에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유럽 예술가들에게 호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일본어의 '아름답다(美しい)'는 <일본서기>에서 '육친(肉親)으로서 억제하기 어려운 애정 상대에게 기울어졌을 때의 감정표출'로 나타난다. 이것은 헤이안 시대에 '작은 것은 모두 아름답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작은 대상에 비유하여 말하는 애정의 표출과 같이 '귀엽다(かわいらし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아름답다(美しい)·곱다(綺麗な)'의 의미가 강해졌다(사사키겐이치, 2002). 이렇게 볼 때 일

〈표 1〉 국외에서 논하는 일본미의 특성

저자	미적특성	미론	미적유형
양취경, 김효진	- 비대칭, 불균형, 불투명, 불안전성	비대칭성 불균형성 불투명성 불안전성	1. 모호미 - 불안전성, 불투명 - 미완성의 완성 - 불균형, 비대칭 - 추함의 미 - 미완성 - 이중적 - 내부, 외부의 조화 2. 절제미 - 간결, 순수, 단순 - 소박, 자연, 빈곤 3. 장식미 - 장식성, 감상적 - 화려, 교태, 과장 4. 유희미 - 형태왜곡, 비합리 - 상징성
채금석	- 반꾸밈미 고담미(미완성, 불안전성, 불균형), 공무미(비합리성, 불안전성, 양면성), 해학미(비합리성, 형태왜곡, 불균형, 비대칭) - 꾸밈미 염의 미(장식성, 감상적), 송고미(상징성)	미완성 불안전성 불균형성 비합리성 비대칭성 양면성 장식성 상징성	
선승혜	- 내부와 외부의 조화, 이중적	양면성	
이선희	- 반꾸밈미: 간결미, 순수미, 추의 미 - 꾸밈미: 화려미, 교태미, 과장미	간결성 순수성 과장성 장식성	
이길호	- 모노노아와레(내면적감동, 비애), - 이키(단순성, 즉흥적, 의도적), - 와비(절제, 단순성, 빈곤적), - 사비(소박미, 자연성)	단순성 즉흥성 의도성 빈곤성 소박성	
Harold Koda	- 불규칙, 비대칭, 불안전	불규칙성 비대칭성 불안전성	

본의 미의식은 작은 것에 대한 애정이나 가련한 심정의 표현에 근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미를 예술학·예술 철학으로 이해한 서구인들과 비교하여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미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펴본다(표 1, 2).

양취경·김효진(2001)은 일본의 미의식은 짝수보다 홀수를 좋아하는 것, 좌우, 상하, 대칭되지 않는 것,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의 미, 건축이나 서예에서 보이는 현란하고 화려한 색을 싫어하는 불투명의 색, 눈앞의 불안전이 아니라 완성의 부정으로서의 미완성이 있으며, 이는 선(禪) 사상과 통한다고 하였다. 또한 채금석(2004)은 일본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는데, 반꾸밈의 미를 고담의 미(미완성, 불안전성, 불

균형), 공무의 미(비합리성, 불안전성, 양면성), 해학의 미(비합리성, 형태 왜곡, 불균형, 비대칭), 꾸밈의 미를 염의 미(장식성, 감상적), 송고의 미(상징성)로 설명하였다.

선승혜(2007)는 일본이 섬이라는 지정학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내부와 외부를 분명하게 구분, 동시에 조화를 중시하면서도 외부의 선진문화를 강하게 흡수하는 이중성이 미의식의 배경이라 하였다. 이선희(2008)는 꾸밈의 미의식을 화려미, 교태미, 과장미로 반꾸밈의 미의식을 간결미, 순수미, 추의 미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이길호(2008)는 모노노아와레는 내면적 감동과 비애, 이키(いき)는 단순성, 묵시성, 즉흥적, 표면적, 의도적으로, 와비(わび)는 절제, 단순성, 빈곤의 아름다움으로, 사비(さび)는 엄격한 소박미, 자

〈표 2〉 국내에서 논하는 일본미의 특성

저자	미적특성	미론	미적유형
오가꾸라 덴신	- 불완전성	불완전성	1. 모호미 - 완전성 - 불균형, 불규칙 - 비대칭
히사마쯔 신이치	- 완벽한 것의 자기부정, 불확정 - 불투명한, 수수한, 소박한 아름다움	불완전성	
카즈히로 세리지마	- 추함의 미 - 불균형, 불규칙	불균형성 불규칙성	
야시로유키오	- 인상성, 장식성 - 상징성, 감상성	인상성 장식성 상징성 감상성	2. 장식미 - 감상성 - 장식성
쓰지노부오	- 유희성 - 장식성	유희성 장식성	3. 유희미 - 상징성

연성으로 일본 미의식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Harold Koda는 일본미의 중요 요소로 불규칙, 비대칭, 불완전성을 논하였다(채금석, 2004).

일본문화의 소개에 앞장선 19C 미술 평론가 오가꾸라 덴신은 일본문화의 특색을 불완전성으로 보고 공상에서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특수한 미의식이라고 하였으며, 그림, 공예 등은 어디엔가 부족하고 찌그러져 재미있는 면을 가진다고 하였다. 히사마쯔 신이치는 덴신의 이러한 설을 수정하여 ‘완벽한 것의 자기부정’이라고 하였다(채금석, 2004). 일본문화의 불확정성은 언젠가 완전히 도달하기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것을 자제하는 불투명한, 수수한, 소박한 아름다움인 것이다(채금석, 2004). 카즈히로 세리지마는 일본미의 정수는 추함의 미로 표현하였는데, 균형이 잡혀있지 않고 불규칙적인 특색이 일본미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언급하였다(박세정, 2005). 야시로 유키오는 ‘일본미술의 특질’에서 일본 미술이 갖는 4가지 요소를 인상성, 장식성, 상징성, 감상성으로 분류하였다. 쓰지노부오는 일본 미술의 특징을 유희성과 장식성으로 설명하였다(쓰지노부오, 2006).

일본의 미적 특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불완전성에 대해 언급한다. 불완전의 사전적 의미는 ‘완전하지 못하거나 완전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완결성을 깨고 다시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아온 것과 같은 완성의 부정으로의 미완성, 또는 미완성의 완성의 미라고 할 수 있다. 불균형, 불규칙, 비대칭 또한 완벽한 것의 자기부정과 같은

불완전성과 미완성의 표현 방법이다. 또한 내부와 외부를 분명하게 구분함과 동시에 조화를 중시하는 양면성 역시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여 애매모호함을 느끼게 하는데, 여러 뜻이 뒤섞여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운 성질을 의미하는 모호미의 범주라 할 수 있다(그림 1).

또한 일본의 대표적 미의식인 와비와 사비가 있다. 와비는 간결, 단순, 빈곤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비는 엄격한 소박미, 자연성으로 설명된다. 일본의 다도와 정원처럼 자연적 혹은 의도적으로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제한한 것으로 이는 절제미로 볼 수 있다. 반면, 야시로유키오와 쓰지 노부오가 일본의 장식성과 유희성을 언급한 것과 같이 가부키나 우키요에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장식미, 아름다운 자태를 의미하는 교태미는 의도적으로 꾸며진 모습으로 이는 과장을 포함한 장식미라 할 수 있다. 형태의 왜곡, 해학과 같은 상징성은 의도적으로 꾸며지되, 즐겁게 놀며 장난하고자 하는 일이나 행위를 뜻하는 유희미의 범주라 할 수 있다(그림 2).

일본 국내외 모두 불완전성과 단순, 빈곤의 절제미를 미적 특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본 밖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조화, 이중성, 양면성을 언급한 것이 다르다. 또한 장식미와 유희미 역시 국내외에서 바라본 미적 특성이나, 일본 국외에서 과장미와 교태미를 언급한 것이 다르다. 핫토리 유키오에 의하면 일본의 미의식은 전통을 거슬러 보았을 때 꾸밈계와 반꾸밈계라는 대조적



〈그림 1〉 료안지

(출처: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p.82)



〈그림 2〉 가쓰시카 호쿠사이, 성난 파도

(출처: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p.69)

인 두 조류가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 살펴본 일본미의 특성을 두 조류로 나누어 볼 때 불완전하거나 양면성을 보이는 모호미와 간결, 단순, 빈곤의 절제미는 반꾸밈의 미로, 과장, 교태, 화려 등의 장식미와 상징, 해학의 유희미는 꾸밈의 미라 할 수 있다.

2. 일본미의 미적 특성

일본의 미의식은 꾸밈계와 반꾸밈계로 양분하여 설명되는데, 앞서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본 일본미의 특성을 선행연구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꾸밈 미학」(채금석, 2004)을 바탕으로 반꾸밈의 미와 꾸밈의 미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미적 특성을 살펴본다.

가) 반꾸밈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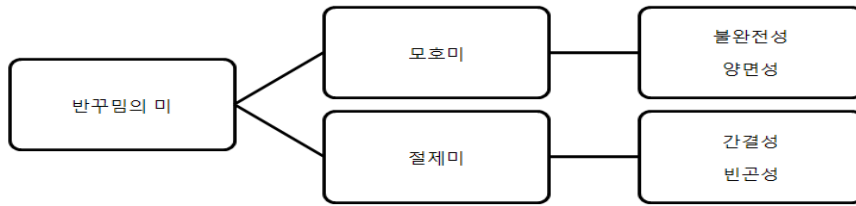
일본의 독특한 미의식이라 할 수 있는 꾸미지 않는 미는 중세 이후 일본인의 미의식으로 자리 잡아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채금석, 2004). 이는 일본 문화의 외적 아름다움에 대항하는 내적 아름다움의 선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섬세한 아름다움, 자연에의 애수, 고요의 정서, 옛것에 대한 정취의 개념으로써 미의식과 감정의 조화를 제시한다.

꾸미지 않는 미의식, 즉 반꾸밈의 미학은 불교의 한 종파인 선(禪, Zen)의 공(空)사상과 통한다. 선은 인간과 우주의 근본 실체를 파악하고 생과 사를 초월한다. 우주의 모든 원리를 터득하

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철학이다. 선은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가마쿠라 시대(13C)에 집대성되었다. 이후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문화를 창출하였는데, 오늘날의 선은 일본의 선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의 미의식이 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통념의 하나이다(야나기잔 세이자, 1995). 선이란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무형식의 상태, 공의 상태로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외적인 형식을 버리고 속박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선사상이 배경이 되는 ‘꾸미지 않는 미의식’은 간결의 미, 생략의 미,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떨어내고 걸러낸 후에 떠오르는 미의 개념인 정적인 미로 모호미의 간결성이다(쓰지노부우, 1994; 채금석, 2004).

화려한 풍류를 즐기면서 산속의 생활을 꿈꿨던 헤이안 시대 귀족의 미의식에는 ‘아와레(あわれ)’에 바탕을 둔 자연에 대한 애뜻함이 깔려있다. 아와레는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했으나, 이후에는 애련, 비애의 의미로, 헤이안 중기에는 애수를 띤 세련된 미적 감동인 ‘차분한 정취’로 사용되었다. 또한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われ)는 사물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대상의 본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로마치 시대에는 유현(幽玄)의 미적 가치로 창출되어 마음의 멋스러움이자 메마르고 차가운 요염미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는 와비·사비라는 몰락한 귀족들의 반항적 의식이 만들어낸 일종의 반문화적 형태로 전개된다. 빈곤함 속에 그윽한 아름다

〈표 3〉 일본미학의 반꾸밈의 미



움이 있다는 의미로 한적한 풍취를 즐기는 은둔자의 모습에 응축된 품격미와 정신적 풍요에 와비는 존재하며, 극도로 생략된 표현 속에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소박함과 무작위의 미가 내재된다. 이는 미완의 가능성을 통한 완(完)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채금석, 2004). 즉, 화려한 미와는 극을 이루며, 물질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요구한다.

와비는 불완전한 아름다움이며 완성 전 단계, 완성된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미를 의미하여 일상생활의 무계획 속에 이루어진 아름다움, 즉 무의식의 미, 불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사사키 차가, 2007). 사비는 세월에 의해 퇴색하고 마멸되는 현상을 인지한 미로 다른 시간의식을 투영시켜 공간과 시간의 이중 구조를 형성하는 미의식이다. 사비는 일본 미술, 건축, 복식 등에 다양하게 나타나며 간결성, 빈곤성, 자연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일본의 반꾸밈은 일반적 기저로 풀어감으로써 다의성과 가변성을 지닌다. 이러한 성향은 애매 모호성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양면가치적 특성으로 형성되는데, 양면성은 과거의 화려함과 현실의 한적함이 동거하는 감정으로서 유현, 유심, 와비에도 내재한다. 이에 일본의 반꾸밈 미학은 크게 불완전성, 양면성의 모호미와 간결성, 빈곤성의 절제미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표 3).

나) 꾸밈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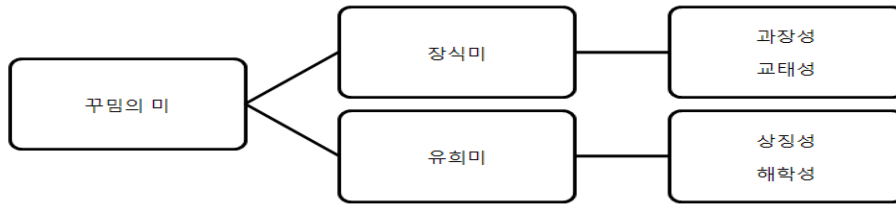
‘꾸미다(가자루, かざる)’라는 말은 ‘가자시(かざし)’의 동사 ‘가자(かざす)’에서 파생된 것이다. ‘장식’이라는 말은 막부 말엽과 메이지 시대에 decoration 또는 ornament를 번역한 것으로 중국의 옛말을 되살린 것이며(쓰지노부오, 1994), 허세, 괴이한, 본뜨기, 사치스러움 등으로 특징되

는 꾸밈은 미의식은 귀족들의 신분 표현을 위한 과시 욕구와 맞물려 일본미술의 장식성 창출의 원동력이 되었다.

꾸밈 미의식은 나라 시대의 ‘미야비(雅び)’에서 찾을 수 있으며, 풍류와 같은 윤리적·정교(政敎)적인 측면과 호색·염려와 같은 감각적·유미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풍류는 긍정적, 도회적, 귀족적, 유락적인 예술 취미로 신선적 분위기와 연관된 도외적인 세련된 취향을 상징하며,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 특유의 우아(優雅)라는 ‘아와레’의 이념을 탄생시킨다. 아와레는 대상을 접할 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위 있고 섬세하며, 애수를 띤 느낌으로 귀족적, 독자적인 미를 완성시킨다. 현란하고 요염한 미로 전개됨으로써 꾸밈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루게 된다. 일본인의 호색미, 감각미, 관능미로 대변되는 미는 교태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세 가학이나 전통무극인 노가쿠의 미적 이념인 ‘감출수록 아름답다’라는 은폐의 미로서 내면적으로 적극성을 띄면서 외면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에 서양의 관능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은근미가 내재되어 있다.

헤이안 시대의 미적 이념인 다케다카시(長高)는 ‘웅대하다, 위대하다, 기품이 있다’는 뜻으로, 격조가 높고 장대한 느낌의 숭고미와 과장의 장식미를 의미한다. 또한 헤이안 귀족의 정서에는 명랑함이 내재되어 있는데, 보고 웃고 싶은 감정으로 내면으로부터 은은한 감동과 애수를 중시하는 일본의 미의식인 오카시의 미적이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 무사들은 긴장감과 무료함을 과장된 장식을 이용한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통해 꾸밈과 유희라는 고차원적인 예술로 승화시켰다. 오카시는 미추와 관계없이 어떤 대상을 보고 웃음을 느끼는 쾌활, 명랑한 기분을 뜻한다. 대상에 관한 가치판단이 수반되어

〈표 4〉 일본미학의 꾸밈의 미



〈그림 3〉

Issey Miyake 08 S/S
(출처: <http://www.gettyimages.com>)



〈그림 4〉

Yohji Yamamoto 06 F/W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5〉

Issey Miyake 08 S/S
(출처: <http://www.elle.com>)



〈그림 6〉

Issey Miyake 01 S/S
(출처: <http://www.livingly.com>)

칭찬과 비방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점차 익살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일본인의 미의식 속에는 외부적으로 진지함을 내세우면서 이면에는 왕성한 장난기와 유희성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는 일본 조형의식의 밑바탕에 깔린 요소로 평가된다. 일본 미의식에 내재된 추함의 미에는 오카시에서 비롯된 미의 유희로서 대상의 심오한 가치판단이 수반된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유희성이 내재되어 있다. 꾸밈의 미를 과장성, 교태성의 장식미와 상징성과 해학성의 유희미로 나눌 수 있다(표 4).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적 미학

일본은 1980년대 경제력 향상과 디자이너들의 세계무대 진출로 일본 패션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일본 디자이너들은 다원화, 개방화, 세계화, 비합리성, 비구조성을 추구하면서 전통적이고 인습적이었던 서구 패션에 새로운 줄기를 형성하였는데(양취경, 김효진, 2001), 이러한 일본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살펴본다.

1) 반꾸밈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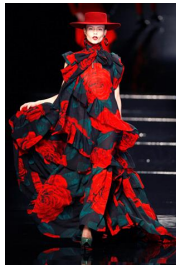
① 모호미

모호미는 반꾸밈 미로 양면성, 도회미, 유희미, 불확정성, 모호성, 무형식성, 미완성의 미적 특성이 있으며, 형태의 모호성, 색의 모호성, 성의 모호성으로 나눌 수 있다(채금석, 2004). 형태적으로 드레이퍼리, 전개형, 비구조적 디자인, 좌우비대칭, 마무리 없이 남겨둔 형태 등이 있으며, 색상으로 불교의 유희미와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흑색과 중간색의 이미지가 있다. 성의 모호성으로는 성의 개념이 불분명한 양성적,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다.

기모노는 앞길을 많이 겹쳐 여며 허리에서 끈으로 고정하는 형식으로 좌우가 비대칭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 복식의 형태적 특징은 디자이너에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남궁민지, 1999), 〈그림 3〉은 전통적인 기모노 이미지로 좌우비대칭, 비구조적인 형태의 모호성을 표현하며, 주름과 드레이퍼리로 그 효과를 더한다. 〈그림 4〉는 비대칭과 해체, 중성적 이미지로 불완전과 양면의 모호한 미적 특성을 보인다. 사무라이는 죽음을 각오하는 정신을 소유했는데, 그 죽음과 자기부정의 이미지가 흑색으로 표현되어 현재 일본의 정서를 대표하는 색으로 남아 있다. 흑(黑)은 근원 혹은 되돌아감, 그래서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음을 상징한다. 존재하는



〈그림 7〉

Takada Kenzo
07 F/W(출처: <http://dce-fashion-network.blogspot.kr>)

〈그림 8〉

Takada Kenzo
07 F/W(출처: <http://www.vogue.co.uk>)

〈그림 9〉

Yohji Yamamoto
04 F/W(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0〉

Yohji Yamamoto
00 F/W(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1〉

Rei Kawakubo
08 S/S(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2〉

Rei Kawakubo
06 S/S(출처: <http://www.vogue.com>)

것에 대해 미완성으로 여기며, 존재하는 근원을 관찰하여 실재를 함축하고 있는 색으로 본다(김바라세이코, 1978).

② 절제미

반꾸밈의 절제미로 빈곤, 단순, 직선, 자연, 허의 미가 있으며, 복식에서는 직선, 단순한 실루엣, 빈곤과 해체의 디테일 등이 나타난다. 현대 패션에서 최소한의 면적감을 위해 소재를 플리즈 소재로 압축, T자형 실루엣, 세부장식의 배제가 나타난다. 또한 절제미는 일본 특유의 해체적 빈곤으로 좌우비대칭, 불규칙적인 햄라인, 주름, 찢기, 해집, 꼬임, 감기, 걸치기, 뒤집기, 구멍, 얼룩, 비틀기, 구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5〉는 불규칙적인 주름과 구긴 효과를 통해 일본 특유의 해체적 빈곤미와 모호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6〉은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에 좌우 비대칭과 찢어 구겨진 듯한 효과를 통해 해체적 빈곤을 표현한다.

2) 꾸밈의 미

① 장식미

꾸밈의 미로 장식미는 화려미, 교태미, 관능미를 포함한다. 현대 패션에서는 간결한 실루엣에 나비, 꽃, 구름, 식물 등의 화려한 모티브 장식이 있으며, 오비와 러플, 리본 등의 여성적인 디테일과 다채로운 꽃문양의 리틀걸룩, 페미닌룩으로 장식적 효과를 나타낸다.

일본의 전통 속에 내재된 꾸밈과 유희는 일본 독자의 꾸밈문화를 형성하는데, 〈그림 7〉은 니

트 소재 위에 화려한 꽃문양의 자수 장식이 있으며, 비대칭적인 어깨선 라인과 노출을 통해 관능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보색의 핸드백 악세서리를 사용하여 장식의 효과를 더하고 있다. 〈그림 8〉은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의 커다란 꽃문양 프린트로 화려함이 돋보인다.

② 과장미

미학적 측면에서 헤이안 시대 다케다카시의 숭고적 미의식은 예술에 있어 거대한 과장미를 낳게 하였다. 전통복식에서 나타나는 중첩에 의한 형태적 과장은 일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원천으로 작용되어 70년대에는 빅룩, 레이어드룩으로 소개되었으며 현대 패션에서 중첩 효과의 레이어드, 과장된 크기의 형태, 의외성의 부풀림과 허세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9〉는 빅룩의 코트로 칼라 부분을 일본 기모노 목선에서 형상화하여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은 거대한 A라인의 코트 안에 여러 겹의 옷감으로 중첩을 효과를 내어 과장과 부풀림을 살리고 있다.

③ 유희미

꾸밈의 유희미는 균형, 비대칭, 무질서, 탈구성, 탈중심, 해학, 괴이함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해학, 여백, 과장, 공간, 소재의 표면 질감 등을 통해 생(生)을 긍정하는 낙천성을 표현한다. 현대 패션에서도 과장, 변형, 부조화, 위치 전환, 생략의 기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존의 형식을 거부하며 자유로움, 편안함의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좌우비대칭의 형태 왜곡, 극단적인 양감의 강조, 독특한 외형과 주름 표현, 기외하고 해학

〈표 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적 미학

대표적인 미		표현 기법
반꾸밈의 미	모호미	실루엣: 드레이퍼리, 전개형, 비구조적 디자인, 좌우비대칭, 끝마무리 없이 남겨 두거나 옷이 풀린 상태 색상: 흑색과 중간색의 이미지
	절제미	실루엣: 직선미, 단순한 실루엣 색상: 블랙, 화이트의 통일된 색상 디테일: 해체적 빈곤으로 좌우비대칭, 불규칙적 햄라인, 주름, 찢기, 해집, 꼬임, 감기, 길치기, 뒤집기, 구멍, 얼룩, 비틀기, 구기기 등 소재: 가죽, 니트 등 사용
꾸밈의 미	장식미	실루엣: 비대칭과 노출, 직선과 곡선의 조화 디테일: 나비, 꽃, 구름, 식물 등의 화려한 모티프
	과장미	실루엣: 중첩, 빅룩, 레이어드룩
	유희미	실루엣: 좌우비대칭의 형태 왜곡, 극단적인 양감의 강조 디테일: 독특한 외형과 주름 표현, 독특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소재: 거칠고 불규칙하며 투박한 표면질감, 양감 있는 표면

적인 디자인이 있다.

〈그림 11〉은 표면에 중이가 구겨진 질감을 표현하고, 핑크색 색상과 독특한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로 괴이함과 해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는 소재를 통해 거칠고 불규칙하며 투박한 표면질감을 표현하였으며, 해체와 양감으로 형식을 거부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일본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5).

Ⅲ. 한·일 미적 특성 비교 및 현대패션에 나타난 미적 관점 비교

1. 한·일 미적 특성 비교

한국의 미는 무작위의 미와 무작위적 작위의 미로 나누어지며, 일본의 미는 꾸밈의 미와 반꾸밈의 미로 나누어진다. 양국의 미의식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무작위의 미는 앞서 작위적이지 않고 생활 본연의 양식화 작용을 통해 나오는 것을 일컫는 말로 사물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서 주위환경이나 자연과의 융합, 조화를 추구한다.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꾸밈의 미는 선사상의 공과 통하는 것으로 외적인 형식을 버리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사랑은 건축이나 정원에 잘 나타나는데,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다. 미술 또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순리를 따르는 인간의 겸허함을 엿보이게 하며, 생활 속에 스며있는 자연의 미감을 표현한다. 사물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심미안으로 아름다움을 찾는 자세,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분수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한국미의 자연성이다. 반면, 일본은 선사상을 통해 무형식의 상태, 공의 상태에 순응한다. 이것은 외적인 형식을 버리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반꾸밈 미의 바탕이 되나, 의식을 의도적으로 투영시켜 완성의 거부, 절제를 보이는 것이 다르다. 이는 개방성과 유연성으로 외래문화를 수용, 거부보다는 자신의 틀에 맞추어 선택하는 현대 일본문화의 양면성과 연결된다. 한국의 자연미가 자연의 비균제성, 무기교성을 표현하는 반면, 일본은 미의식과 감정 사이의 애매모호성, 양면성, 불완전성을 보이거나 의도적인 간결, 생략, 단순, 빈곤, 은폐 등을 사용한다. 분명한 것보다 애매한 것에, 사실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에 가까운 미적 가치를 발견

〈표 6〉 한국과 일본의 미적 특성 비교

한 국			일 본		
무작위의 미	자연미	비균제성 무기교성	반꾸밈의 미	모호미	불안전성 양면성
	소박미	단순성 통일성		절제미	간결성 빈곤성
무작위적 작위의 미	선형미	비례성 균형성	꾸밈의 미	장식미	과장성 교태성
	해학미	익살성 풍류성 민예성			
	일탈미	과형성 불균형성		유희미	상징성 해학성

할 수 있다(박세정, 2005). 이것은 복잡하고 장식적인 것을 피하고 단순화하기를 좋아하여 세부 표현에 정확성이 부족, 작위적이지 않고 생활 본연의 양식화 작용을 통해 나오는 한국의 소박미와는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한국의 무작위 미와 일본의 반꾸밈 미는 자연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일본은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계획하지 않은 듯 계획된 기교를, 생략과 절제를 통해 꾸밈의 미를 만들어 낸 것이 한국의 무작위적 미와는 다르다.

한국의 무작위적 작위의 미와 일본의 꾸밈의 미는 모두 일종의 장식적인 미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보편성을 바탕으로 차별성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그대로에서 과하지 않은 다른 성질의 미적 의도를 표현한다. 혹은 인위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기본성질이 변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과 형을 닮고자 하며, 우러나오는 감정을 본질의 변형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미의식이다. 반면 일본은 전통에 내재되어 있는 꾸밈과 유희로 대륙의 장식적 요소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꾸밈문화를 형성하였다. 꾸밈미는 귀족들의 과시 욕구와 맞물려 허세, 괴이함, 본뜨기, 사치스러운 면이 있으며 우스꽝스러움, 감각, 관능으로 자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즉, 한국과 달리 자연을 배제한 장식적 요소가 차이점이다.

한국의 곡선과 직선, 대칭, 비례를 통한 선형미는 완만한 자연을 본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옅고 담담한 색조의 아름다움 역시

기교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스러운 작위이다. 우해학적 표현으로 대담한 생략과 왜곡, 과장, 좌우 대칭에 대한 무신경, 이지러진 둥근 맛이 주는 공간미가 있으며, 익살, 해학 또한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일본은 감각적이며 관능적인 화려미와 장식을 통한 인위적인 과장과 유희를 추구한다. 미에 있어 한국은 자연을 닮고자 하는 장식미를 추구한다면, 일본은 자연을 배제한 새롭고 인위적인 장식미를 추구한다.

조요한(1999)은 정원에 대해 일본은 자연을 주택의 마당에 끌어들여 주인 행세를 하려 하나, 한국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였다. 이어령은 한·일은 선비정신과 무사도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선(線), 일본은 색(色)에 치중하여 다르다 하였다. 또한 최광진(2015)은 한국은 접화의 미학이며, 일본은 응축의 미학이라 설명한다. 접화의 미학은 상극의 존재가 어울려 상생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신과 인간, 자연의 모함을 이루는 것이며, 응축의 미학은 작고 치밀하게 응축된 결정체에서 미적인 쾌감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자연을 통해 있는 그대로 묻어가는 미를 추구하는 반면, 일본은 자연의 미적 감각을 대상에 함축시켜 감정을 이입하는 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미적 감각은 대상에 응축시켜 표현함에 따라 다양한 표현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표 6).

2. 현대패션에 나타난 한·일의 미적관점 비교

비교미학은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존재하는 특징적인 미적 개념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미적인 특성을 부각시킨다. 한국과 일본의 미학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미적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무작위의 미와 일본의 반꾸밈의 미는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무작위 미로는 자연미, 소박미가 있으며, 일본의 반꾸밈 미로는 모호미, 절제미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동양 문화권으로서 자연에 대한 정감적이며 감상적인 감응은 유사하나, 실루엣, 색상, 소재, 디테일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실루엣에 있어 양국 모두 평면 전개형의 비구조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으나, 한국은 자연스러운 주름을 통한 울동성이 보이는 반면, 일본은 울동적인 주름보다는 비대칭적이거나 구조적인 특성을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색상에 있어 한국은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로 자연미와 소박의 미적 특성을 보여주는 주된 색상으로 사용하나, 일본은 무채색이 주된 색상으로 흑색과 회색과 같은 중간색이 주된 색상으로 표현된다. 또한

한국은 면과 모시 등의 자연적 느낌의 소재 사용과 단순한 실루엣을 통해 인위적이지 않은 소박함과 자연성을 표현하지만, 일본은 소재의 다양한 표면감을 통해 꾸미지 않은 듯 소재의 변화를 표현한다. 디테일은 한국은 자연적인 옷감의 유연함을 이용한 주름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은 기본 소재에 올플립, 불규칙 헴라인, 주름, 찢기, 해집, 꼬임, 감기, 걸치기, 뒤집기, 구멍, 얼룩, 비틀기, 구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단순함이 빈곤미로 이어지는 미적 특성을 표현한다. 한국은 꾸밈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성을 표현하는 반면, 일본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모호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무작위적 작위의 미와 일본의 꾸밈의 미는 유사하게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무작위적 작위의 미로는 선형미, 일탈미, 해학미가 있으며, 일본의 꾸밈 미로는 장식미, 과장미, 유희미가 있다.

선의 원리는 외적 대상, 예술작품, 그리고 그것이 환기하는 감정에 적용된다(토머스먼로, 2002). 실루엣에 있어 한국과 일본 모두 평면 후의 입체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 패션은 곡선

〈표 7〉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미적 특성 비교



과 직선을 통해 보이는 균형과 비례미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일본은 레이어드를 통한 중첩의 효과나 과장된 형태적 특성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색상에 있어 한국은 색동과 같은 오방색을 주된 색상으로 표현되나, 일본은 무채색을 바탕으로 표면질감이나 직물에 표현된 문양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색상감을 표현한다. 디테일에 있어 한국은 한글과 민화의 사용, 익살스런 디자인, 의도적인 비대칭, 해체 등을 표현하는 반면, 일본은 화려한 꽃문양과 장식, 오비나 깃의 장식, 변형된 실루엣 등을 사용한다. 한국은 익살스럽거나 해학적인 모습을 표현하나, 일본은 기괴함과 독특함,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미학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적 차이를 비교하여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7).

IV. 결론

동양미학은 학문의 범주와 정당화에 대해 다양한 논리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동양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미의 잠재적 가치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적 감성이 중요해진 시대에 각각 최선의 요소를 선택해서 종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교미학은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미적 개념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미적인 특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미적 차이를 이해하여 현대 패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본의 문화와 예술에 내재된 미의식은 모호미, 절제미의 반꾸밈의 미와 장식미, 과장미, 유희미의 꾸밈의 미로 나뉘게 된다. 일본의 미의식은 한국과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국의 무작위의 미와 일본의 반꾸밈의 미, 한국의 무작위적 작위의 미와 일본의 꾸밈의 미가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꾸밈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성을 표현하는 반면, 일본은 꾸밈 듯 꾸미지 않은 모호함으로 상징화한다. 또한 한국이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과 형을 닮고자 하며, 우리나라는 감정을 본질의 변형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반면, 일본은 자연 그대로

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계획하지 않은 듯 계획된 기교를, 생략과 절제를 통해 꾸밈의 미를 만들어 낸 것이 한국의 미의식과 크게 다르다.

양국의 미학적 특징은 현대 패션에서도 그 특성이 달리 나타나는데, 한국 패션에서는 자연스러운 주름을 통한 울동성, 흰색과 검은색 중심으로 한 자연색, 자연적인 면과 모시 소재의 사용, 자연적인 주름이 무작위의 미적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곡선과 직선을 통한 균형과 비례, 색동과 같은 오방색, 자연적인 면과 모시 소재의 사용, 한글과 민화의 사용, 익살스런 디자인, 의도적인 비대칭이 무작위적 작위의 미적 특성으로 표현되었다. 일본 패션에서는 비대칭적이거나 구조적인 특성, 무채색, 흑색과 회색과 같은 중간색, 소재의 다양한 표면감, 다양한 기법의 디테일을 사용한 빈곤미가 반꾸밈의 미적 특성으로 표현되었으며, 중첩과 과장, 레이어드 룩과 빅룩, 중간색 계열의 색상으로 장식, 소재의 다양한 표면감, 화려한 꽃문양과 장식, 오비나 깃의 장식, 변형된 실루엣 등이 꾸밈의 미적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래에는 디자인 분야가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한 기반이 되는데, 이를 위해 미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름다움과 감성의 가치를 끌어내어 차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미학적 관점을 살펴보면 전통에서 이어온 자국의 미를 미학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현대 패션으로 변형, 전개시키는 일본에 비해 우수한 한국적 미의 미흡한 전개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한국미학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적 패션에의 전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문화의 새로운 시각과 우수성이 세계화되는데 실증적 자료로 이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인숙, 윤순봉.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 복식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2010). *한국과 일본 현대패션에 표현된 전통미의식의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영필. (1992). 한국 전통 미술의 미학적 과제. *한국학 연구*, 4, 228-231.
- 권영필. (2005).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읽는다*. 서울: 돌베개.
- 민주식. (1992). 비교미학의 과제와 방법. *인문연구*, 13(2), 181-209.
- 박세정. (2005). 일본적 공간 개념의 분석에 의한 실내 공간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사키겐이치. (2002). *미학사전*. 서울: 동문선.
- 사사키차가. (2007). 일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 전통미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7(1), 17-27.
- 선승혜. (2007). *일본의 미의식. 미학대계 제1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쓰지노부오. (1994).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서울: 시공사.
- 야나기잔 세이자. (1995). *禪과 日本文化*. 서울: 불광출판사.
- 양취경, 김효진. (2001). 전통 미의식적 관점에서 본 요지 야마모토의 작품세계 연구. *생활문화연구*, 15, 1-31.
- 윤보연. (2001). *현대패션에 반영된 전통 미의식의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길호. (2008). *현대 일본 실내 디자인의 일상미학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와비-사비의 미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2008). 현대패션에 표현된 일본 전통 미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3), 15-25.
- 조요한. (1999). 한국미의 탐구를 위한 서론. *한국미학예술학회*, 9, 5-27.
- 채금석. (2004).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한국복식학회지*, 54(8), 129-146.
- 채금석. (2004).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꾸밈 미학. *한국복식학회지*, 54(3), 113-127.
- 채금석, 김주희. (2016). 현대 패션에 내재된 한·일 미적관점 비교연구(제1보): 한국의 미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8(2), 161-175.
- 최광진. (2015). *한국의 미학*. 경기: 예술문화.
- 김바라세이코. (1978). *동양의 마음과 그림*. 서울: 새문사.
- 토머스 먼로. (2002). *동양미학*. 서울: 열화당.